



금속민투위

분쇄! 노동탄압
강화! 산별노조
완성! 주간연속2교대
쟁취! 현장권력
철폐! 비정규직

■ 발행인 : 의장 김 봉 윤 ■ 발행처 : 선전실(25-15호) ■ 게시기간 : 09월 06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대표 이 흥 진

자랑찬 49,665명의 지부장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쫓~ 합시다

역대 최고의 부결 책임을 딴 곳으로 돌리지 마라!

박유기집행부는 어제(화) 쟁대위 속보를 통해 78.05%의 역대 최고의 압도적 부결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와 의견이라며 '잠정합의 시기 조합원은 예측 못함',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 '명확하지 않은 교섭내용들이 SNS와 설명회를 통해 빠르게 확산', '임금은 해석이 달랐고 현장혼란 가중' 등을 언급했다. 이는 현장정서와 동떨어진 대단히 잘못된 평가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재협상 하라!

▲잠정합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너무나 부족했다. ▲임금과 성과금은 두 말 할 것 없이 턱없이 부족했다. ▲사측의 공격적 태도에 휘둘리며 질질 끌려가다 우리 요구안을 전혀 쟁점화 시켜내지도 못했다. ▲별도승호도 문제지만 현장조합원의 전화문의에 상집이 잘못된 내용으로 설명했고 그것이 현장에 돌아왔다.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는 사측이 논의를 거부한다며 그 흔한 상징적인 문구조차도 없다. ▲어느 집행부도 합의하지 않았던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합동 품질세미나, 노사공동 홍보활동도 합의했다. ▲식단가 인상 요구했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 1회 특식단가만 고작 500원 올랐다. ▲파업하고, 철농하고, 출투하고 있는데 쟁대위 지침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측이 답답해하는 M/H협의를 하라고 풀어줬다. 이에 재미봤는지 사측은 노동조합이 비상시국인 지금도 이런저런 부서별 협의를 종용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 | |
|-------------------|---|
| 2016년 (박유기집행부) | 58,000원 350%+330만원+ 상품권 20+주식 10주 |
| 2015년 (박유기집행부) | 85,000원 400%+400만원+ 상품권 20+주식 20주 |
| 2014년 | 98,000원 450%+870만원 |
| 2013년 | 97,000원 500%+870만원 |
| 2012년 | 98,000원 500%+960만원 |

조합원은 강한 투쟁을 요구한다!

역대 최고의 부결로 심판했는데 1주일 정취근무가 왜 말이나?

표에서 보듯이 박유기집행부 출범 이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은 전집행부가 마무리 못한 임단협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다소 부족해도 참았다.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 올해는 참을 수 없다. 뻑시게 투쟁해서 제대로 쟁취하자는데 조합원의 요구다. 각종 지표상 경영실적 그리 나쁘지 않다. 몇 년새 주당 배당금 2배나 올랐다. 요래 다 빼먹고 조합원은 갈수록 개별도 없다. 박유기집행부, 강한 조합원을 믿고 제발 쫓~ 사측에 끌리지 말라!